

Sixiang Wang. “Co-constructing Empire in Early Chosun Korea: Knowledge Production and the Culture of Diplomacy, 1392-1592.”

Introduction-Ch.1

<Introduction>

- 조명의 안정적 관계와 외교적 실천에 관한 중요 주장: 1) 조선은 명과 제국을 공동건설함으로써 명의 주권적 주장을 구성하였고, 궁극적으로는 한계를 정함으로써 제국의 이익에 유연하게 대처하였다. (조선으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정치적 욕구와 보편적 통치에 대한 제국적 열망을 조정)
- 2) 외교의 실천적 맥락에서 조공의례와 사절단의 시 외교 등을 통해 언어, 의식의 요소를 통해 조명관계의 안정성을 볼 필요가 있다.
- 3) 조선은 명과의 힘에 있어서의 비대칭 관계를 우수한 제국의 지식을 활용하여 조선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 제국이 제후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후국의 인정이 제국을 정당화. 즉, 명나라의 존재에서 조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 조선은 명의 체계,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조선은 명을 보편적 통치자로 인정하고, 명의 정치적 질서에 조선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 고려-원/조선-명의 관계는 그 성격이 다르다. 고려와 원의 사이 주권(제후국)과 주권 관할권(제국)의 관계가 제도적인 연결고리를 통해 고려 왕실의 권리를 축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조선과 명의 주권관계는 달랐다. 조선은 영토 내에서는 배타적 주권을 소유했으며, 대외적으로 일본, 류큐와 외교를 할 때에도 주권은 인정되었다. 또한 조선 내에 명의 군사, 관료, 행정가들은 상주하지 않았다.
- 고려-원 시기처럼 제국의 제도적 강압 즉, 제국 지배의 ‘형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대의 제국의 정당화를 통해 조선이 자신의 종속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 Towards a History of Empire

- 이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국의 담론과 표현이 어떻게 제국의 권위를 지지하는 것이 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이는 단순 기존 권위의 합리화가 아니라 규범의 특정 틀 안에서 정치적 행동이 가능한 매커니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문제 -> 조선이 명 제국의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는 명과의 관계를 다시 쓰는 것이었음. -> 제국을 안정된 국가가 아닌 형성 과정의 맥락에서 봐야 함.
- 이는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변수로만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음. 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empire making)은 이론, 서사, 관념 그리고 제도의 문제가 수반된다.
- 또한 제국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강요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한다. 자신의 위치를 이

해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요. 제국 지배의 합법화와 관련된 부분이 설득. 이는 제국-제후국의 사회 및 지리적 공간에서 비롯되는 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영역으로, 공식문서, 시, 시각적 문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권위, 힘과 규범적 이상 관계의 개념을 내재하고 있는 측면.

- Empire, Territory, and Sovereignty

- 서구의 제국 개념을 조명관계에 직접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지적.
- 조명관계에서 제국 운용의 레퍼토리를 인식하고, 이것이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초기 근대 제국에 대한 동아시아 자신의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 統(통): 제국의 강압에 대한 법적, 군사적, 행정적 메커니즘으로 제어하는 것. 이는 시공간적으로 공시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 지역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음. 하지만 統은 실의 링크로써 전승된 권위의 의미의 傳統(전통)을 수용하는 의미이기도 함.
- 전통에서 비롯되는 과거와의 연관성은 현재 제국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만들고, 영토, 제도, 국민에 대한 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연결. 지속적인 제국의 전통 -> 正統(정통)
- 단, 본 연구에서는 조명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계로 제국의 공시적 측면이 통시적 측면보다 강조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empire/帝國(제국): 19세기 후반 이전 동아시아에서는 帝國이라는 표현을 자국뿐만 아니라 동시대국가들에 잘 붙이지 않았음. 19세기 후반 서양과의 만남에서 제국이 번역어로서 사용되고, 서구 담론과 주권의 권위의 상징을 적용한 결과물. 동아시아의 내재적 empire 개념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정치적 권위, 합법성, 제국과 제후국의 주권관계, 이를 모두 포함하는 질서의 표현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함.
- 조선의 국내정치를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을 소유했지만, 외부의 관계에서는 위계적으로 정의된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왕조는 공시적 지배를 위한 영토적 독립과 제국의 힘의 관계에 대한 합의를 교환한 것. (서구적 개념처럼 영토와 주권의 개념의 정확한 관계를 가정하는 차원에서 국경을 합의하는 개념이 아님)
- 이 과정에서 명과 조선 사이의 주권에 대한 주장은 경쟁,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 Chosun Korea and the Imperial Tradition

- 조선과 명이 어떻게 자신의 관계를 이해했는지를 표현하는 제국의 가치관, 논리 실천에 대해서 이해해야 함.
- 조선과 명조가 서로의 영토주장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조선이 처음 세워졌을 때 원의 붕괴 속에서 명과 압록강 주변에서 국경 분쟁이 있었음. 당시의 조선과 명의 인식. 명은 압록강을 갈등의 지점으로 보았으나, 조선은 명의 포용적인 제국의 영향력에 의해 분열적이고 갈등적인 힘들이 다 녹아 없어질 것으로 인식하였다. (“Imperial influence is not bound by limits of the civilized and the barbarian? What use is there to distinguish one’s territory from another?”-조선의 영토에 대한 질문)
- 조선의 주권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동아시아에서 주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을 제기한다. 1) 공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 天下/大一統-朝. 2) 우주(天下)의

- 통치와 조선 통치의 주권 구분. -> 동아시아의 제국의 주권에 대한 주장은 탈영토화와 보편주의, 보편적 권위의 차원이었으므로 영토의 확장을 통해 실제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음.
-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군사적 정복 보다) 正統으로써의 합법적 제국 계승의 서사가 필요함. -> 합법적 혈통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공했던 다양한 관습, 지식전체가 제국이 어떻게 기능하고 유지될 것인가를 가리키는 것.
  - 조선과 명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제국 형성의 논리 하에서 제국 내 조선의 권위와 천하의 비전 사이의 긴장관계라 할 수 있음.

• Knowledge of Empire: Source and Approaches

- 동아시아 제국의 특성 상 조명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외교 실무에서 표현, 담론 상징의 문제를 다루는 접근법. 외교의 문화적 역사를 볼 필요.
- 조명관계에서 종속적 임무도 있었지만,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수준에서 평행적 동학에 의한 외교관계도 있었음.
- 이것이 이론상으로 천하라는 명제국의 권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질서로 구체화되지는 못한 상황 -> 외교의 평행적 동학은 조선과 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욕구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함.
- 이러한 표현은 지식형태로 나타남. 지식은 단순 서술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해석체계이고, 의도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수단으로써의 지식체계에 주목.
- 조선은 조선의 비전을 구성하고 그것을 제국 내에 위치시키는 데 있어서 '제국의 지식체계'에 자신의 역량을 투자한 것.
- 제국의 언어와 상징을 통해 제국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제국의 권위를 합법화하고 강화하는 것. 하지만 스스로 제국의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제국의 도구(지식)에 참여하여 외교적 수사학을 통해 수정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냄.
- 이런 점에서 초기 조선의 대명외교는 정당한 정치체로써 제국을 구성하는 행위와 이에 자신의 선호를 반영시켜 보려는 측면에서 조선의 주권적 주체성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조선은 스스로 제국의 지식을 생산해냄으로써 제국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조선은 제국을 '공동구성'할 수 있었으며, 명과의 비대칭 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 페어뱅크 식에 따른 한국의 종속성을 수정할 필요성.
- 의식적 관례, 서신, 문학 등 문화적 자원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음.

**Chapter1. “Eternal the Eastern Fief, Serving the Great with Utmost Sincerity?: Diplomatic Memorials and the Imperial Tradition**

- 조선과 명나라의 초기 외교의 측면. 문학작품을 통해 명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후국으로서의 조선에 대한 고정관념 해체.
- 조선의 문장가들이 제국의 정당화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국을 장려한 것.

- 한반도의 통치자들은 表文(표문)을 중국 황제들에게 주기적으로 올렸음. 이를 통해 제국의 합법성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음.
- 제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항상 우월한 관계로 규정되어 실천적으로도 이를 보장받고자 하였지만 주변국은 항상 정치적으로 열등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었음. (예를 들어 청-버마의 공식적 외교관계에서 버마의 황제는 청과 동등한 지위로 기술하고 있으나, 번역문에서는 조공체제의 언어로 나타나고 있음.)
- 조선은 예외적인 케이스. 1) 일단 제국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 없음. 2) 황실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통치자들은 자신을 왕으로 묘사하고 황제의 천자로서의 우주적 권위를 인정해 옴. -> 천하에 대한 진정한 정서를 표면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조선의 문서는 미묘하고 정교하게 제국주의를 흠집 내는 의도가 담겨 있음. 이는 사소한 모욕적 레토릭이 아닌 한국의 특권을 제국의 담론적 구성 속에서 주장한 것.
- 명확한 문법, 형식적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래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써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문학

- Diplomatic Memorial: the Genre

- 지식의 대상으로써 외교 기념관이 존재. '동양 문학 선집'에 외교 서한들이 수집되어 있음.
- 조선의 동양 문학 선집은 양나라 왕자인 Xiao Liang이 모은 '문학 선집'과 이름은 동일하지만, 조선에서는 중국과 동등한 한국적 규범을 만드는 방식이 포함됨이었음.
- 제국의 통제를 넘는 국내정치에서의 주권 영역에 대한 통치권의 합법화를 외교적 언어로 표현하면서도 우주를 통치하는 보편적 영역에서의 천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즉 명과의 의식적 위계는 지속하면서 조선은 자신의 영역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이를 위해 선집 내에서 다양한 수사학들이 내용적으로(memorial), 형식적으로(literary) 사용되고 있음.
- 대내적인 문서들에서는 명황제에 보내는 찬양의 문구들을 조선의 왕에게 보내기도 했다. 제국에 대한 문구를 자유주의적으로 사용한 것.
- '신중한' 황제에 대한 헌신, 황제의 '의무 준수' 등의 내용을 중국에 선포하기도 함. 이는 제국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국의 전통에 의해 정당한 제국 모델에 대한 규범적 호소.
- 조선과 제국 간의 공통적으로 내재된 정치적 전통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호적인 관계로 해석되지는 않음. 제국의 담론과 행위에 대한 경쟁적인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또한 명과 비슷하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황실을 모욕했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음.
- 중요한 부분은 제국에 대한 경쟁적 담론과 주권 주장 사이의 관계. 이는 제국의 역사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음

- Genealogy of Empire

- 제국의 계보학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왕조의 전략적 활동과 그 의도를 파악.
- 삼국 시대는 제국의 권위와 명령자의 힘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음. 고구려도 경쟁 왕국에 대해 제국의 개입을 희망하며 군사원조를 요청했고, 신라도 고구려, 백제와의 경쟁을 위해 당의 협력을 요청함.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국의 권력을 찬양하는 언어를 전략적으로 채택한 측면이 있다.
- 고려는 수사학과 현실의 구별에 대한 예리한 의식을 지닌 상당한 외교 기술을 가지고 있었

음. 당시 중국의 어느 황제도 제국의 전통을 독점하지 못했던만큼 제국 왕조는 고려의 조공 임무 나 충성 선언을 독점적으로 누리지 못했음. 이 시기의 문서들은 제국의 전통과 중화의 연결고리가 약하며, 고려는 다민족 제국에 Memorial을 보냄.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는 제국들 사이에서 상징적 중요성을 획득했음.

- 한반도 왕조의 행위가 제국에 대한 찬양과 추모의 부분에서 중원왕조가 기대하는 것과 항상 부합한 것은 아니었음. 황실이 기념문 등에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도 할 정도. 명태조는 조선인을 포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학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 Constructing Authenticity: Sincerity and the Imperializing Mode

- 한반도 왕조의 이상의 전략적 고려의 연속성에서 조선의 명에 대한 충성스러운 신의의 외교를 보고 있음.
- 조선의 Memorial의 상징적 중요성은 '성실'. 성실의 수사학으로 서신들에는 자발적인 복종을 표현. 제국의 권위에 대한 자율적인 인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의식을 수행 한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의식의 반복적인 수행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메커니즘일 가능성이 있음.
- 성실의 수사학은 제국의 청중을 위한 한국 외교의 화행으로써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했음. 신의와 성실의 외교적 수사학은 조명관계에서 자리잡게 됨.
- 명도 제국주의 권위를 진정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적이 자발적으로 명에 대한 충성을 보일 필요가 있지만, 이적에서 보내오는 서한의 범위와 내용을 엄격하게 지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서적 표현이라는 목적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 이적에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제국의 기대에 부합하는 경우가 중요한 접점인 것. -> 조명관계가 이상적인 이유
- 한국의 전략과 제국의 기대 사이의 긴장은 실천과 정규성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만들어냄. 확립된 규범에 부합하는 제국의 기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제후국의 관계 속에서 제국을 형성하는 공동의 과정임.